

오순절 후 열한번째 / 교회학교 승급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1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8월 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 장 “예수 우리 왕이여” (2 번 반복)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1 번 시편 68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엡(Ephesians) 4:1-16, 요(John) 6:24-35	김현 집사
찬 양 Anthem	“항해자”	찬양대
설 교 Sermon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Grow up into Him)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220 장 “사랑하는 주님앞에” (통일 27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29)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 4:15-16)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in all things grow up into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Ephesians 4:15-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8/4 (주일)	8/5 (월)	8/6 (화)	8/7 (수)	8/8 (목)	8/9 (금)	8/10 (토)
본문	삿19	삿20	삿21	룻1	룻2	룻3,4	삼상1
	행23	행24	행25	행26	행27	행28	롬1
	렘33	렘34	렘35	렘36,37	렘38	렘39	렘40
	시3,4	시5,6	시7,8	시9	시10	시11,12	시13,1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8/7수 오후7:30)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시51:14-19)
토요 새벽기도회 (8/10토 오전6:30)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이시도다”(시147:12-20)

지난 주일 (7/28)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엡 3:14-21, 요 6:16-21)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1)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2)둘째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며, 3)셋째는,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굳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저절로) 강건해지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으며”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게 될 때라야만,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게 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롬3:5)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며?” 또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것을 구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